

No. 2013-30

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7. 22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
: 일본의 수출에 이상기류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1 일본경제지표

□ 주간 시황지표

- 엔화환율 : 미 양적완화책의 조기축소 예상에 따라 약세
- 장기금리 : 미 국채금리의 하락 영향으로 하락세

구분	7.15(월)	7.16(화)	7.17(수)	7.18(목)	7.19(금)
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(달러당)	-	99.95	99.35	99.70	100.85
엔화의 대원화 환율(100엔당)	1,130.84	1,123.16	1,127.85	1,121.63	1,115.72
닛케이평균주가(종가)	-	14,599.12	14,615.04	14,808.50	14,589.91
장기금리(10년물 국채금리, 연리%)	-	0.825	0.820	0.800	0.805

□ 주요 거시경제지표

- 6월중 엔화환율은 전월보다 강세, 장기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
- 5월중 경상수지는 엔저효과로 4개월 연속 흑자 기록

구분	2011	2012	2013						
	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
실질GDP증가율(연율,%)	0.3	1.2(2.0)	4.1			-	-	-	
수출(천억엔)	653	639(637)	48	53	63	58	58	-	
수입(천억엔)	697	721(707)	64	61	66	67	68	-	
對한국 수출	52.1	49.7(49.1)	4.01	4.25	5.21	5.07	4.61	-	
對한국 수입	32.9	32.8(32.4)	3.12	2.92	2.81	2.58	2.85	-	
직접투자(억달러)	(1,157)	(1,223)	226			-	-	-	
對한국 투자	(24)	(40)	7.5			-	-	-	
소비자물가(전기비상승율,%)	0.0	▲0.2(0.0)	▲0.3	0.1	0.3	0.3	0.2	-	
실업율(%)	4.5	(4.4)	4.2	4.3	4.1	4.1	4.1	-	
경상수지(천억엔)	76.2	42.9(47)	▲3.6	6.4	12.5	7.5	5.4	-	
엔화 환율	對미달러	79.1	82.9(80.1)	89.2	93.2	94.8	97.7	101.08	97.43
對원화(100엔)	(1,391)	(1,413)	1,197	1,166	1,161	1,148	1,100.33	1,165.79	
외환준비고(기말, 천억달러)	12.9	12.5(12.7)	12.7	12.6	12.5	12.6	12.5	12.4	
국채금리(10년, 연리%)	0.985	0.560	0.740	0.665	0.560	0.600	0.860	0.855	

주1) ()는 역년(1~12월)기준

2)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은 기간평균, 자료: 닛케이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□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(report watching site)

- 『일본기업의 해외사업 변천과 국제비교 관련 조사·분석 : 내외일체 경제 성장전략구축 관련 국제조사사업』 경제산업성, 7월18일
*출처: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2012fy/E002632.pdf
- 『비제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 고용창출』 일본은행, 7월19일
*출처:http://www.boj.or.jp/research/wps_rev/wps_2013/wp13j08.htm
- 『대내직접투자의 산업간 파급(spill over)효과』 일본은행, 7월19일
*출처:http://www.boj.or.jp/research/wps_rev/wps_2013/wp13j09.htm

② 주간경제이슈 : 일본의 수출에 이상기류

□ 수출회복, 벽에 부딪쳐

- 닛케이신문에 의하면, 신흥국 기업들의 설비증강에 의한 공급과잉으로 일본의 수출회복이 벽에 부딪치고 있음
 - 철강, 화학, 조선 등의 산업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가운데, 가격하락을 기피하는 일본기업들이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억제하는 사례가 발생
- 가뜩이나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전 중단에 따른 연료수입증가 못지않게 수출부진도 적자확대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
 - 일본 내각부가 시산한 5월 시점의 수출수량지수는 달러당 78엔대의 엔고가 지속되었던 1년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
- 일반적으로 엔저가 되면 먼저 수입물가 상승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다가, 이후 6개월~1년정도의 시차를 두고 수출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J커브효과가 나타남
 - 그러나 이번 엔저국면에서는 수출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임

□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경쟁 격화가 배경

- 배경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급과잉에 있음
 - 관련 업계의 추계 등에 의한 시산에 따르면, 세계 전체의 공급능력은 화학(에틸렌 계통)분야에서 수요의 1.2배, 철강분야에서는 1.3배, 조선분야에서는 2배로 모두 수요를 초과하고 있음
 - 특히 조선분야의 공급과잉이 심각한데, 세계 철광석의 연간 해상수송량은 2012년에 2008년대비 30% 증가했는데 비해, 대형 벌크선은 80%나 증가
 - 일본의 조선업체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액화천연가스(LNG)운반선 등의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나 신흥국들도 동일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
- 엔저로 일본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는데도, 동경제철의 경우 금년 2월부터 재개된 철강제품(압연코일)의 수출을 억제하고 있음
 - 대아시아 수출의 채산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관계자의 지적인데, 중국에서의 가격은 톤당 3,590위안으로 1월보다 14% 하락

□ 일본의 대중국 수출순위 3위로 밀려

- 2013년 상반기 일본의 대중수출이 한국과 대만보다 적고 2013년 전체로도 제 1위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
- 중국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상반기 중 761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.8% 감소한 한편, 한국은 11.6%증가, 대만은 36.8%가 증가하여 일본의 부진상이 역력함
- 2012년 7~12월 기간중에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제 1위를 점하게 되고, 2013년 1~6월기간중에는 대만에도 밀려 일본이 제 3위로 전락, 제 4위인 미국과의 차이도 좁혀지고 있는 실정
- 일본의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반전된 것은 2012년 1~3월 기간인데, 품목별 영향도를 보면, 대중국수출의 주력품목인 건설기계 등 일반기계의 부진이 큼
- 일본건설기계공업회에 따르면, 금년 5월에는 전년비 71.8%나 감소했는데, 중국정부의 부동산 투자억제책으로 건설기계의 수요가 급감한 것인 원인임

□ 해외 일본투자기업으로부터의 대중국 부품공급 증가

-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기업이 생산거점을 현지화하거나 글로벌 부품공급망을 재정비한 영향이 큼
- 일본의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아시아 전역에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하여 현지 및 여타 국가들로부터의 부품조달로 대체함에 따라,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그만큼 감소하게 됨
- 소니 등 AV제조업체들의 대중국 공급제품은 EMS(전자기기의 수탁제조서비스)나 현지공장에서의 조립이 많음
- 나아가, 중국내 및 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부품조달을 늘리고 있어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은 완성품, 부품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구도임
- 파나소닉은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의 공장에서 조립하는 텔레비전의 액정패널을 자사제품으로부터 한국산 제품 등으로 대체하고 있음
- 이와같은 움직임은 중전기기 분야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는데, 중국에서 조달 확대를 서두르는 히타치는 금년 4월 상해교통대학과 제휴하여 현지에서 재료를 분석, 평가하는 거점을 설립
- TDK 등 전자부품업체도 중국에 주력공장을 이관, 현지로부터 직접 완성품을 조립하는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음
- 한편, 코스트 경쟁력면에서 우위에 있는 한국과 대만 업체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
- 중국에서는 천원스마트폰이라 불리는 16,000엔 전후의 한국 및 대만산 저가 범용부품이 보급됨에 따라 일본업체들이 열세에 있다고 닛케이가 보도
- 이와 관련하여,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생산이 일시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, 한국과 대만의 업체들이 중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고 일본업체들은 보고 있음

□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서플라이체인 구축 확대가 무역적자로 이어질 전망도

- 2012년도 일본의 총수출에서 접하는 대중국 수출의 비중은 전년도 대비 4% 감소한 17.7%로 4년만에 미국에 재역전되어 2위로 밀림
- 한편, 수입은 순조롭게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대중무역적자는 약 4조엔으로 확대
- 일본기업들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 전역에 서플라이체인 구축을 확대하는 한, 일본의 대중무역은 앞으로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

3 경제정책동향

□ 아시아지역에 기술자육성 프로그램 수출

- 일본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식 기능교육 보급에 나서기 시작
 - 관학 협동으로 일본의 고등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을 2015년까지 한국과 중국 및 동남아시아 12개 국가들의 대학에 수출
 - 모노즈쿠리교육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수요가 많아 아시아 국가들의 전문인력육성 지원하는 동시에, 현지진출한 일본 기업을 지원할 목적인 것으로 닛케이신문은 전하고 있음
- 본 교육시스템은 기계공학이나 프로그래밍 등 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학교로서 교육과정은 5년간이며, 공장설비의 조작방법을 배우는 등 실습을 통하여 기능을 익히게 함
 - 일본에는 국·공·사립 학교 합쳐 57개가 있는데, 총 학생수는 58,700명, 취직율은 100%에 가까움
-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학,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조직인 「아시아고등전문직인재육성 네트워크(APEN)가 각국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작성
 - 우선 시범적으로 태국의 국립 타마사트대학의 인재육성센터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위해 10월부터 동 대학측과 협의
- 각국의 사정에 맞도록, 2014년 초부터 아시아 지역의 산업동향과 교육 상황을 조사할 계획인데, 조사비용은 일본정부와 ASEAN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일·ASEAN통합기금(JAIF)으로부터 약 30만달러를 지원받게 됨
 -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 금년중으로 ASEAN국가들로부터 승인을 얻게될 예정
- 조사결과를 토대로,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커리큘럼을 본격적으로 수출할 예정
 - 현시점에서는 자동차산업 비중이 큰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동공과대학에 기계공학 등의 수업을 도입
 - 전기기기산업에 강한 싱가포르에서는 난안공과대학에 전자공학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도입할 예정
- 커리큘럼은 국가나 대학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, 일본의 고등전문학교 교원이나 제조업 관련 퇴직자들도 현지에 파견할 예정

4 일본기업동향

□ 스마트폰 업계의 재편 전망

- NEC가 중국 레노보그룹과의 휴대전화사업의 통합을 보류, 스마트폰 사업으로 부터 철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
 - 현재 일본의 스마트폰업체로는 소니 등 5개 그룹이 있는데, 미국의 애플사 등 외국기업들에 의한 일본시장 진출이 계속되는 있는 실정임
 - 이에 따라 수세에 몰린 일본업체들의 재편압력이 커, 합종연횡과 하위업체들의 철수로 집약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
- 과거 일본 휴대폰 시장은 10개사를 넘는 일본업체들이 있었으나 가라케라 불리는 종래형 휴대폰이 주류였던 수년전까지는, 모노크루리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단말기 개발경쟁을 벌이면서 일본업체들이 시장을 거의 독점해 왔음
- 그러나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경쟁조건이 단기간에 일변함에 따라, 2012년도 일본시장점유율에서 애플이 25%로 제 1위, 삼성전자가 7%정도로 제 5위를 점함
- NEC는 뒤늦게 스마트폰 분야에 참여하는 바람에 판매대수에서 선발업체에게 크게 밀림
 - 접이식 등 종래형 핸드폰분야에서 히트상품 개발에 주력한 나머지, 스마트폰에 대한 경영자원 집중이 여의치 않았음
- NEC와 같이 뒤늦게 참여한 후지츠는 2010년에 스마트폰 기술을 가진 도시바와 사업통합을 함으로써 일본시장점유율 제 2위를 유지
- NTT도코모가 올 여름 판촉비를 소니와 삼성의 2개 모델에 집중투입하는 투톱전략을 들고 나온 것도 NEC의 부진을 재촉한 요인
 - 6월말까지 누계 판매대수에서 투톱 대상기종은 20만대를 넘는데 비하여 NEC는 1만대 정도에 그침.
- NEC는 앞으로 종래형 휴대전화에 특화하여 고령자용 등의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나, 중장기적으로 종래형은 시장축소가 불가피할 전망
- 남아 있는 스마트폰 업체들도 앞길이 순탄치 않음
 - 파나소닉은 올 겨울 도코모에 대한 스마트폰 공급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시작
-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확대가 필요하나 패자들끼리 손을 잡아보았자 별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어서 철수가 불가피한 업체도 나올 전망

5 한국관련워치

□ 리튬이온전지 분야에서 고부가가치제품으로 한국에 대항

- 일본정부는 리튬이온전지가 앞으로도 주류를 유지하는 데 고성능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, 전기자동차(EV)의 주행거리를 2030년경에 현재의 3배인 500km로 늘려, 휘발유자동차 수준으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
 -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등 차체용전지의 성능을 높이면 1회 충전으로 주행가능거리가 늘어나 보급이 확대될 수 있음
- 리튬이온전지 뿐만 아니라, 형태가 다른 차세대전지 개발도 지원하여 단계적으로는 고성능전지를 보급시키려는 의도임
-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전지는 기초연구단계로 실용화 전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리튬이온전지의 성능을 높이면서 대응
 - 리튬이온전지의 실용화에는 일본기업들이 먼저 출발했으나, 지금은 한국과 중국 업체들에게 밀리는 상황에서, 기존 제조설비를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신기술로 성능을 높이면 고부가가치제품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판단임
- 일본기업들은 리튬이온전지의 재료 및 부재 분야에서 50%에 가까운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
 - 따라서 새로운 전극 및 첨가제만으로도 상당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, 장래를 내다보고 일본의 강점을 살린다는 연구개발전략을 추진